

# 순창 장류축제, 소스박람회 성공적 폐막

###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해 주민들과 방문객 시선 사로잡아

제14회 순창장류축제와 순창세계발효소스박람회가 지난 20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19일과 20일인 축제 이틀날과 셋째날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예년의 가을 날씨를 되찾아 나들이 나온 방문객들이 축제장으로 한꺼번에 모이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제14회 '순창 장류축제'가 지난 18일 순창고추장민속마을 일대에서 개막했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도전! 다함께 순창고추장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고추장을 만들어보고 있다.

축제와 박람회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리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행사장을 찾은 주민·방문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축제 첫 날인 18일에 황숙주 순창군수와 최용범 행정부지사를 비롯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성공적 행사를 기원했다. 개막식 퍼포먼스로 조선시대 임금님께 고추장을 진상했던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며 고추장의 유구한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로잡기 흥분했다.

20일 이벤트 무대에서 열린 고추장 매운맛 대회는 전국에서 모여든 방문객들이 저마다 매운맛 최강자임을 증명하며 혼신을 다하는 모습에 관람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행사장 한 켠에 마련된 체험놀이관 부스를 찾은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립과 생존의 기술을 배우는 '치유 밭 모두의 숲'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주말을 보냈다.

이외에도 순창 전통장을 직접 담그는 체험부터 순창매운소스를 활용한

이해정 셰프의 쿠키쇼, 유명 B인 '한나'의 유튜브 쇼 등 볼거리가 풍성했다.

국화분재도 대규모로 전시해 방문객들이 국화를 배경으로 연신 카메라 버튼을 누르기 바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장류축제와 소스박람회는 관광객과 바이어들의 참여로 축제의 산업적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축제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또한 화려한 조명과 빛으로 수놓은 EDM소로 집으로 향하려던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축제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거리다. 이번엔 장류축제는 장류를 테마로 한 축제답게 전국의 유명 떡볶이 맛 집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 청소년과 여성 관람객의 입 맛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또 19일 오전에 열린 유명 떡볶이 맛집의 요리쇼는 방문객의 시선을 사

# 남원시,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 대응

### 거점소독초소 2개소 24시간 운영 등 관내 모든 축산차량 철저히 소독

남원시가 청정남원을 사수하기 위한 대책으로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남원시지역은 시의 철저한 방역시스템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AI, 구제역 등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우리나라 대표 청정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남원시는 최근 경기, 인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시의 유입을 막기 위해 가축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거점소독초소 2개소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관내 모든 축산차량 및 관련차량에 대해 철저히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일부터는 관내 모든 살이있는 돼지의 타 시도 반출·입을 금

지하고(전남제외), 사료에 대해서도 타 시도 사료는 거점소독 초소에서 소독 후 관내 차량으로 환적해 농가 공급을 하는 등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특히, 양돈차량 출입이 많은 도축장 1개소에 대해서는 시 소독차량으로 매일 도축장 주변과 진입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남원시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뿐만아니라 구제역 및 AI 차단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3주간 모든 소, 염소 (4만7,155두)에 대해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가금류 전 농가에 대해서도 입식전 사전신고 후 가축방역관의 현장소독 실태를 확인 해 인식케 하는 등 방역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여성 생활기술 과제교육

임실군이 농촌여성 역량강화에 발맞추고 나섰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8일 농산물가공센터 교육장에서 농촌여성 43명을 대상으로 생활기술과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 대상은 농촌가정을 건강하게 육성하고, 농촌여성의 지위 및 권익 신장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며 지역봉사활동 등에 적극 활동 중인 농촌여성들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쑥쑥농부들'이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일 둘째, 넷째 토요일에 광한루 앞 요천변 뱃길에서 프리마켓을 펼치고 있다.

## '쑥쑥농부들' 프리마켓 운영 11월까지 매일 둘째, 넷째 토요일 광한루 앞 요천변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에서 육성한 강소농(작지만 강한 농업인) 출신들의 자율적 모임인 '쑥쑥농부들' (대표 박희숙)이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일 둘째, 넷째 토요일에 광한루 앞 요천변 뱃길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프리마켓을 펼치고 있다.

쑥쑥농부들의 프리마켓은 올해로 3년째이며, 30여 농가가 직접 생산한 신선농산물, 농산가공품, 수공예품 등을 들고 나와 소비자와 현장에서 소통하며 판매하는 것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한 신선하고 값싼 지역 농특산물 판매는 물론 홍보를 겸해 우리지역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도 한몫 하고 있으며, 부대 행사로 우리농산물로 요리시식회와 버스킹,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체험행

사 등을 열어 고객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잡곡, 오미자, 사과, 산채나물 등 1차 농산물과 식품제조 허가를 받아 생산한 과실즙, 수제청, 한과, 약과, 도토리묵, 김부각, 장류 등 가공제품은 농가가 직접 제작한 핸드메이드 제품들로 다양하게 구성해 시민들과 관광객의 반응이 매우 좋다.

최정인 농촌진흥과장은 "쑥쑥농부들이 생산한 제품은 모두 핸드메이드 제품이나 신선 농산물로 시민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정성 가득한 농산물이라며, 앞으로 제한된 농업인에서 벗어나 경영과 마케팅까지 열을 다하며 소비자와 상생을 도모하는 '쑥쑥농부들' 회원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민사회교육 수강생 작품 옥천골미술관서 열려

순창군민사회교육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갖고 닦은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여유롭게 감상 할 수 있는 전시회가 다음달 3일까지 순창 옥천골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20일 동안 열릴 계획이며, 지난 15일부터 광목자수, 도자기 공예, 생활양재, 캘리그래피 수강생들의 작품 120여점이 전시되는 1부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미술아카데미, 사군자, 서예 수강생들의 작품 90여점이 전시되는 2부 전시회를 갖는다.

특히 이번 전시회가 뜻 깊은 것은

군민사회교육생들의 작품들을 미술관에서 다함께 전시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이번 전시회를 이끈 군민사회교육 양모 강사는 "다들 본업에 충실하면 서로 여가시간을 활용해 일과 중의 스트레스도 풀면서 머리를 식히고 수없이 많은 핑지락을 통해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이 탄생했다"며 수강생들의 부지런함을 칭찬했다.

한편 군민사회교육은 매년 반기별로 기술교육, 취미교육 등 12개 과정으로 300여명이 수강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매아리

### 임실군 공유재산 실무교육

임실군은 지난 18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70여명을 대상으로 '2019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팀의 윤상우 강사를 초빙하여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부터 권리 및 처분방법,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업무전반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공유재산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배가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임실군은 무단점유나 불법사항 점검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현장조사를 병행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맥류 적기파종 당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맥류의 안전월동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제공에 나섰다.

관계자에 따르면 맥류는 겨울철이 되기 전에 보인이 5~6매가 나올 수 있게 파종해야 안전한 월동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서 지역별로 적기에 파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남원지역의 맥류 파종기기는 10월 중·하순으로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파종하는 것이 좋다.

적정 파종량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양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보리는 재배양식에 따라 10a당 13~20kg이며 세조과(골 너비와 골 사이를 좁게 하여 여러 줄로 파종)재배는 10~14kg을 파종하고, 밀은 10a당 휴립광산과(논 표면에 배수관을 만들어 흩어뿌림)는 16~20kg이고 세조과 재배는 10~13kg을 파종하면 적정하다.

또한 파종 전에는 반드시 종자를 소독해 이삭마름 병, 붉은곰팡이 병 등을 예방하고, 보리 파종 후 3~4일 이내에 토양처리 제초 약제를 살해여 잡초를 방제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